

국제수자원학회 'RIVERTECH 96' 학술회의

서 규 우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1. 머리말

지난 '96년 여름에 미국 AGU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인 EOS의 국제학술행사의 안내 및 소개 코너에서 국제수자원학회(IWRA ;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에서는 지난 시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산업화와 도시화현상이 전세계적으로 급진전되면서 개발우선 논리에 밀려 대책마련 없이 행해진 개발주도형의 하천정책 및 하천유역관리 실태를 인식하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과 개념의 도입을 주창하였다. 즉 인간과 하천이 자연이라는 큰 울타리속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New/Emerging Concepts For Rivers'라는 슬로건 아래 'RIVERTECH 96'이라는 타이틀로 제1회 국제 학술회의를 '96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하였다. 한창 더운 여름이었지만 실험실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로 급히 들어 갔더니 벌써 발표논문의 원고마감이 끝나있어 참석을 포기하려는데 조원철 교수님께서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Session별 주제들이 우리의 하천환경 현실에서 매우 필요한 것들이어서 새로운 개념, 방법, 현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RIVERTECH 96' 행사는 IWRA에서 주관

을 하고 미국 토양보존국(USGS), Urbana-Champaign과 Chicago에 있는 Illinois 대학과 Cincinnati 대학, Marquette 대학, New Mexico 대학, 시카고시, Illinois 주정부 등의 후원으로 시카고 다운타운내의 호텔가에 위치한 유서 깊은 Fairmont 호텔에서 개최가 되었다. 개최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권에서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과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러시아, 인도,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과 호주 등 20여개국의 대학교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Engineering 설계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수공전문가들이 약 250여명이 등록을 하여 참석하였으며 행사기간 중에 200여명이 추가로 참석하여 약 130여편의 논문과 7편의 포스터를 발표, 전시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영남대학교 이순탁교수님과 연세대학교 조원철교수님, 그리고 필자해서 총 3명이 참석하였다(사진 1, 사진 2참조).

RIVERTECH 96 행사는 지난 '95년 여름 서울대에서 개최된 '수환경에서의 자연환경재해경감'을 위한 International Joint Seminar에도 참석한 바 있어 필자와는 구면인 Maxwell 박사, Preul 박사 등이 집행위원회를 이끌면서 IWRA의 회장인 Stout 박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시켰다. 행사장에는 IWRA, Illinois State Water Survey와 USGS 등에서 나와 홍보전시 코너를 만들고 각 기관의 연구성과와 연구계획 등을 홍보하고 관련 자료집을 나누어 주기도 하



사진 1. 조원철교수(연세대), Yen 교수, 이순탁 교수(영남대)(오른쪽에서부터)



사진 2. IWRA Stout 회장과 필자(연세대)

였다(사진 3, 사진 4 참조). 전시한 관련 자료 집중에서 1993년 봄과 여름에 미시시피강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에 대해 단순히 홍수량 자료나 강우량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홍수발생으로 인한 여러 상황들을 수문, 수리학적 접근을 통해 다양하게 조사연구할 뿐

만 아니라 홍수발생이후에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자세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놀라웠다. 1993년 미시시피강 대홍수의 USGS에서 수행한 조사연구제목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993년 미시시피강 대홍수에 대한 USGS의 조사연구항목

조사연구항목	연구수행자
FLOOD DISCHARGES	Charles Parrett, Nick B. Melcher, Robert W. James, Jr.
PRECIPITATION	Kenneth L. Wahl, Kevin C. Vining, Gregg J. Wiche
OCCURRENCE AND TRANSPORT OF AGRICULTURAL CHEMICALS	Donald A. Goolsby, William A. Battaglin, E. Michael Thurman
MAJOR IONS NUTRIENTS AND TRACE ELEMENTS	Howard E. Taylor, Ronald C. Antweiler, Terry I. Brinton, David A. Roth, John A. Moody
EFFECTS OF RESERVOIRS ON FLOOD DISCHARGES	Charles A. Perry
PROPAGATION AND COMPOSITION OF THE FLOOD WAVE	John A. Moody
POSTFLOOD OCCURRENCE OF SELECTED AGRICULTURAL CHEMICAL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EAR-SURFACE UNCONSOLIDATED AQUIFERS	Dana W. Kolpin, E. Michael Thurman
FLOOD VOLUMES	Rodney Southard
SEDIMENT TRANSPORT	Robert R. Holmes, Jr.

또 행사장입구에는 새로운 수문관측장비들을 전시하고 구매상담을 벌였는데, Campbell Scientific 사, RD Instruments 사, HYOROLAB 사 등에서 전시한 첨단 관측시스템장비들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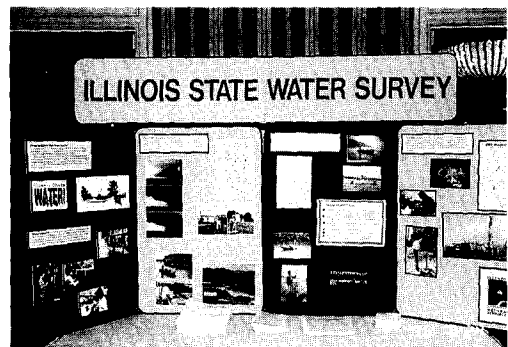


사진 3. Illinois State Water Survey의 홍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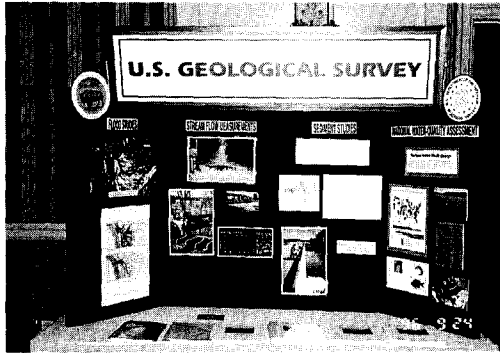


사진 4. USGS의 홍보관

2. 학술회의 발표내용

회의 첫날 모두 연설을 통해 Preul 박사가 IWRA의 25년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 및 앞으로의 IWRA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발표를 하였으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Illinois 대학의 Yen 박사가 'River as a System : An Engineer's View'란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하였는데, 그의 강연내용을 요약해보면 하천은 인류에게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주었으며 인간은 하천을 따라 문명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하천유역은 인류에게 때때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시켰고, 환경에 피해를 주었다. 역사를 통하여 인류는 하천유역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은 극소화하려는 노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변화된 것은 손실과 이익의 예견과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유용한 기술의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과거와 현재에는 공학자들이 계획, 설계 그리고 하천연구 과제의 주요한 수행자이지만 미래에는 연구과제가 여러 상황과 하천의 다른 요소들, 그리고 유역을 System 개념으로 보고 하천유역과제가 수행될 때, 공학자들은 경제학이나 생태학, 지리학 등 관련 학문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공학자들은 항상 계획과 설계 그리고 연구과제의 수립에 대해 유용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방향

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 둘째날에는 오찬과 함께 또다른 특별강연이 있었다. Boulder에 있는 Colorado 대학의 White 박사의 'River as a System : A Geographer's View'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는데 60세가 훨씬 넘은 원로교수로 30여년이상 지리학을 전공으로 다룬 지리학자로서 하천에 대한 견해를 해박하게 발표하셨다. 공학개념으로 접근해본 하천의 입장과 지리학자의 입장에서 유역(watershed)개념으로 바라본 하천의 발달과정 등을 비교하였다. 이어서 회의 첫째날부터 4일간 오전과 오후 계속 이어진 각 Session별 주제를 크게 나누어 보면 수리학적 하천흐름 해석방

표 2. RIVERTECH 96의 각 Session별 발표 논문 주제내용

구 분	주 제 내 용
Session 1	A Open Channel Flow Hydraulics
	B Ecological importance of disturbance regimes record flood and seasonal floodpulses
	C River Quality
	D River Structure
Session 2	A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rivers and floodplains
	B Integrated management of large rivers
	C River Quality
	D Floodplain Management
Session 3	A Management of the Mississippi River
	B Diversion Systems & Hydropower
	C Probability & Statistical Analysis
	D Geomorphology
Session 4	A Risk-based Analysis
	B River Basin/Watershed Management
	C River/Hydrologic Modeling
	D Open Channel Flow Hydraulics
Session 5	A Special Session/Sister Cities Project -Chicago and Birmingham, U.K.
	B Sediment Transport
	C Hydrology
	D Hydraulic Structures
Session 6	A SEPA
	B Vegetated and Natural Systems
	C Flood Plan Management
	D Limited Flows
Session 7	A Public Participation
	B Sediment Transport in Rivers
	C Environmental Hydraulics/Reclamation/Restoration
Session 8	A Ecological Economics
	B Open Channels and Measurement
	C Flood Control/Flood Plain Management

법, 하천의 수질문제, 홍수터관리문제, 하천형태론, '93 미시시피강 대홍수, 하천모형과 홍수해석모형, 하천의 유사퇴적과정, 홍수조절, 도시개발에 따른 하천유역의 복구 등이며 이를 자세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하루에 2개의 Session이 동시에 발표되어 관심있는 부분이 겹쳐있는 경우에는 모두 들을 수 없어 안타깝기도 했지만 발표내용중 기억에 남는 것은 Preul박사가 발표한 USR(Urban Stream Restoration) Plan에 관한 내용과 호주 SEMC사에서 발표한 유역단위의 도시재개발 Project, Soong박사가 발표한 것으로 홍수터에서의 조도계수변화영향을 실험실의 개수로장치를 변형하여 홍수터의 폭을 변화시켜가면서 조도계수의 변화실험을 한 내용 등이며 기타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풍부한 슬라이드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주는 사례연구발표도 인상적이었다.

3. Technical Tour 참관

4일간 오전과 오후 계속 이어진 논문발표가 모두 끝난 5일째 Technical Tour가 있었다. 3가지 코스가 예정되었다가 우천관계로 Skokie River Restoration Project 하나만 실시되었다. 이번 Technical Tour에는 Ohio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이종국선배가 같이 참여하기 위해 새벽같이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날아와 필자와 동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행사본부에서 준비한 전세 관광버스를 타고 비내리는 고속도로를 1시간정도 달려 시카고시 외곽에 위치한 Chicago Botanic Garden에 도착하였다. Chicago Botanic Garden은 우리의 자연학습장과 식물원 등을 합해놓은 것처럼 보였으며 1972년에 조성된 이래로 여러종류의 식물들이 군집하여 주변의 작은 강과 호수 등과 어우러져 있으면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여러 전 시공간이나 학습장, 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Botanic Garden내를 지나가는 Skokie

River를 대상으로 '93년에 파괴된 제방과 하안 등에 대해 자연형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프로젝트에 대해 IWRA 회장인 Stout 박사부부와 함께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프로젝트현장을 시찰하였는데 다음 표 3은 Skokie River Restoration Project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사진 5 참조).

표 3. Skokie River Restoration Project의 내용 요약

기 간	1993년 9월 15일-1996년 5월 31일
문 제 점	1. 하안침식과 수로바닥 침강으로 특성상실과 지해매설과 노출유발 2. 낮은 수로 하류부의 퇴적으로 오염물의 여과 등 완충지역의 기능 약화
프로젝트 목적	1. 침식하안의 안정화 2. 내부흐름 수질향상 3. 강가 완충지역의 강화 4. 비점원오염과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복구기술의 분석
프로젝트 현장규모	1. 습지경감규모 : 1.1 acre의 습지 개척 2. 총대지 acre수 : 12 acres 3. 유로연장 : 약 5,000 ft. 4. 평균 호수폭 : 100 ft. 5. 하안 : 2 miles
프로젝트 방법	1. 제방안정 : 직선 9,550 ft.에 걸쳐 우선적으로 <i>Spartina pectinata</i> 와 <i>Elymus virginicus</i> 를 심음. 2. 관목층 : 직선 450 ft.에 걸쳐 40,000 가지 이상의 <i>Salix interior</i> 와 <i>Cornus obliqua</i> 식생 3. 버드나무 기둥 : 하안 직선으로 750 ft.에 대해 580개의 <i>Salix interior</i> ; 직경 1~3"; 기운데 2~5 ft.로 설치. 4. 아자껍질 다발 : 직선으로 530 ft. 각 단면에 대해 12" x 20' 180 lbs 5. 식생 : 79 종, 112,668 개체 6. 습지개발 : 제거된 토양 300 트럭분 이식된 토양 100 트럭분에 해당하는 습윤 토양 7. 개척비용 : \$ 35,000
복구방법 및 결과	1. 제방안정 : 조밀한 뿌리를 형성해 토양을 보호하고 침식으로부터 보호 하는 native prairie grass, <i>Spartina pectinata</i> (Prairie Cord Grass)를 사용하여 하안을 안정시킴(1994-95). 2. 관목층 : 토양을 고정시키며 제방에 작용하는 수력을 감소시키는 풍부한 뿌리를 가진 native riparian shrubs 가지의 수평층을 이용한 제방안정 기술(1995). 3. 버드나무기둥 : 토양을 고정시키며 제방에 작용하는 수력을 감소시키는 풍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길이 4 ft.의 버드나무 기둥을 제방에 삽입시킨 제방 안정 기술(1995). 4. 아자껍질 다발 : 강하고 유연한 미생물 기반해성 코코넛 껍질섬유 (12" x 20')가 아생습지식물과 함께 심어짐 5. 금어울 강화 : 수생물의 강화와 물의 폭기 증대를 위해 1~3'의 암석 혹은 둥근 돌을 내부흐름의 금어울에 첨가(1994). 6. No-till Drill Seeding : 하안 완충지 11acre 정도에 8가지 아생 목초 표본과 보호 작물로서 일년생 호밀이 섞인 초 본들을 혼합 재식했다. 7. 습지개발 : Skokie 강으로의 유출수의 생물학적 여과를 위해서 다섯 개의 습지대 개발(3개의 U형 만곡부, 늪지대, 범람원)



사진 5. Skokie River Restoration Project
현장 전경

프로젝트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제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풀이나 나무들에 대해 각각의 성장특성을 조사하여 단계별로 씨앗의 파종이 아니라 식재를 하여 복원을 시켰다고 한다. 씨를 뿌릴 경우 대부분 고수위발생 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식생이 곤란하다고 했다. 비록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하천제방의 자연형 양식의 도입을 위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장설명이나 나누어준 유인물에 수백종의 풀과 나무들의 학명들에 대해 각각의 특성이 연구되어있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이러한 학명들을 의외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경우 통상 '이름모를 들풀들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들풀 이름들을 알고 있는가 속으로 헤아려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4. 회의개최도시 시카고 스케치

본 행사가 개최된 시카고시는 미국의 3대도시 중 하나로 우리에게선 나름대로 친숙한 도시이다. 우선 프로농구팀 시카고 불스팀의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단이 생각나고, 바람의 도시, 재즈음악의 발상지 등을 기억해 본다. 알카포네가 시카고거리의 암흑가에서 활약했던 1920년대,

갱들이 경영하던 클럽에서 시카고의 재즈블루스가 탄생했는데 그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지나, 현대건축의 건본처럼 근대도시로서 새롭게 변화한 거리에는 옛날의 재즈가 여전히 어울리며, 갱들이 없는 지금까지도 이 거리에는 그들의 독특한 휴머니티가 살아서 여행객들에게 전해지는 듯하다. 사실 필자는 미국 본토여행이 처음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날씨는 우리의 가을날씨와 비슷하였으며 음식도 여러 인종의 집합도시인 관계로 중국식 패스트푸드점, 바베큐 레스토랑, 시카고 로렌스거리의 한국교포들이 운영하는 한식당 등 현지에 유학차 나와 있는 선배님이나 후배들이 많아 나름대로 어려움없이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5대호 중 하나인 미시간호를 따라 서쪽으로는 위스콘신주까지 남쪽으로는 인디애나주까지 돌아볼 수 있었다.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수리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학술회의에 참가했을 때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시내를 흐르는 Kelang강의 경우 고온다습한 지역이고 스콜이라는 소낙성 강우가 거의 매일 잠깐씩 내리기 때문에 하류로 흘러가는 강물이 항상 흙탕물을 이루고 있었으며 하폭이 한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으며 개발우선정책에 따라 하천유역이 대부분 콘크리트와 파일을 이용하여 개수한 상태였다. 이러한 하천상황을 살펴보면 지형 및 지역적인 특성과 도시개발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하천의 변화형태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고 외국의 도시하천을 우리의 도시하천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보게 되었다.

필자는 여기서도 시카고시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흘러오다가 시내 중심부에서 합류하여 미시간호수로 유입되는 시카고강과 일리노이강,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서쪽경계를 이루고 있는 미시시피강을 살펴보고 싶은 충동에 마음이 설레이었다. 그러나 학회 일정관계상 미시시피강까지는 갈 수가 없어 가까이 있는 시카고강을 보기 위해 둘째날 오전 Session에서 빠져나와서 행

사 장소인 Fairmont 호텔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North Pier로 향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경우 도심지의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빌딩들 사이로 고가도로가 2층, 3층으로 건설되어 있어 눈앞에 보이는데도 길을 바로 찾아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North Pier 선착장에 도착하여 보니 시카고강(사진 6 참조)을 왕복하는 유람선코스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카고강을 끼고 그동안 발달해 온 시카고시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코스이고 또 하나는 시카고시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꼭 봐보고 싶어하는 도시답게 대표적인 현대건축물이 시카고강 양안을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모양과 특색을 지닌 채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유람선을 타고 현대건축의 역사에 대해 직접 구경을 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코스이다. 2가지 모두 요금은 18달러씩이었으며 소요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유람선의 선장이 날씬하게 생긴 백인여자인 것이 인상적이구나 하면서 유람선에 올랐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심 강 양안의 제방형태 및 도시하수의 유입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작정을 하였으니 일반인이나 건축전공자가 들었다면 아마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빌딩들을 보며 지나가기도 바쁘게 어지간히 모자란 사람이라고 면박을 즐린지는 몰라도 수공학을 전공한 필자로서는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호기심인 것을 어찌하리. 아무튼 책에서 본대로 역시 우리의 하천상황과는 확실히 달랐다. 하상계수가 무척이나 작아서인지 제방에 남아있는 홍수흔적들이 평수위와 비교하여 1~2m정도밖에 되지 않았다(사진 7 참조). 그러므로 하천양안중 북단의 제방위로는 바로 빌딩들이 올라가 있고 아파트들의 베란다가 바로 연결이 되어있었으며 남단으로는 강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Wacker Drive가 있어 강을 끼고 산책도 가능하고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다. 친수공간을 고려하여 각 블록마다 하천을 내려갈 수 있게 계단도 마련되어 있어 도심속의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간혹 잔디로 덮혀있는 작은 규모의 고수부지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잡히는지 궁금하였다. 시카고강도 산업화과정에서 초기에는 수질이 무척 악화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하수처리 및 하천구역의 개발을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개선시켜 나간 결과, 악취는 사라졌으며 수질도 어느 도시하천보다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 시내를 관통하는 하류부의 평균적인 하폭이 50m 전후이기 때문에 아직도 큰 배가 지나가면 가동교가 들어올려지고 있고 각 블록마다 설치되어 있는 연결교량들이 각기 다양한 문양을 자랑하면서 하천을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전체가 품격이 있어 보였다. 강을 조금 거슬러 올라 가니 거대한 옥수수모양처럼 2개가 나란히 서 있으면서 20여층까지 자동차양덩이를 밖으로 내놓은 마리나 시티 빌딩이 눈에 들어오고 남북 시카고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한때는 내부 건평이 세계에서 제일 넓었다는 Merchandise Mart 빌딩이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서 있어 웅장한 외모를 과시하고 있었는데 10여개의 국기가 장식처럼 내걸려 있었는데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태극기도 그 중에 있어 무역입국의 결과답게 흐뭇한 기분을 잠시 맛보기도 하였다. 강합류부분을 지나 남시카고강을 계속 거슬러가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Sears Tower 빌딩이 2개의 눈부신 첨단을 자랑하면서 우뚝 서있다. 이쯤에서 유람선여행의 코스는 끝이 나고 유람선은 다시 회항을 한다. 저녁에는 Iowa 대학에 있는 최태훈선배의 안내로 조원철교수님과 함께 시카고시내를 드라이브하였는데 밤시간이 되면서 다운타운은 낮시간안의 활기참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간혹 지나가는 차량말고는 인도에 걸여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적막하기까지 했다. 한국교포들이 형성한 한인타운인 로랜스거리로 가서 오랜만에 순바닥만한 소갈비와 진로소주로 느긋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국에서의 긴장감을 달랬다. 시내구경을 하고는 110층짜리 Sears Tower 빌딩이 건설되기 전까지 시카고 최고의 빌딩으로 사랑을

받았던 John Hancock Center 빌딩 102층의 전망대에 올라 시내야경을 감상하였다. 재즈 (Jazz)의 도시답게 전망카페에는 시카고도시의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듯한 감미로운 재즈음악이 흐르고 도시의 불빛은 한없이 이어져나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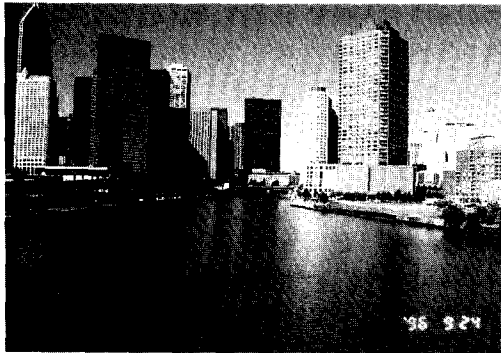


사진 6. 시카고강 하류부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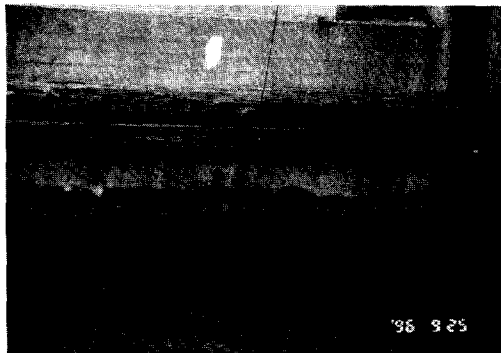


사진 7. 시카고강의 북쪽 제방의 배수관과 홍수흔적

5. 귀로여행

Conference 행사일정이 모두 끝나고 참석한 사람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시카고시를 떠나 위스콘신대학에 있는 후배와 함께 미시간호를 끼고 북쪽으로 3시간정도 달려 위스콘신주 매디슨을 방문하였다. 매디슨에 위치한 위스콘신대학의 공학관을 찾아 박사학위논문이 필요한 자

료중 우리나라에 없는 1880년대의 ASCE 저널에서 Kuichling 등의 논문들을 찾아 복사를 하고 캠퍼스와 기숙사 등을 구경하였다. 대학캠퍼스가 도시의 한쪽 절반을 차지하면서 넓은 호수와 더불어 여유있게 자리잡고 있는 대학건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대학캠퍼스의 현실이 스쳐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싶어 잠시 답답함이 엄습하였다. 매디슨에서 하루밤을 묵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와 이제는 남쪽으로 57번 고속도로를 달려 Urbana-Champaign의 일리노이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후배들과 함께 마침 그때가 한국의 추석날 저녁이어서 불고기와 잡채 등으로 상을 넉넉하게 차려 'Thanks Giving Day' 파티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다음날 74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에 위치한 인디애나주의 West Lafayette에 있는 Purdue대학을 방문하여 캠퍼스구경과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살펴보고는 인근에 있는 Wabash 강을 답사하였다. 독립전쟁당시 인디언들과 피비린내나는 전쟁으로 강물이 온통 핏물이 되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내려오는 강이다. 필자가 본 지점이 이 강의 상류부로 전형적인 우리의 중류이상의 산지하천과 흡사하였다. 하천양안의 상태도 자연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간혹 통나무가 떠내려오다가 양안에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으며 예전에는 뗏목을 이용한 주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고 한다(사진 8 참조).



사진 8. Wabash강 전경

이제 귀국을 위해 다시 시카고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북으로 가로지른 65번 고속도로의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과 농장들을 바라보면서 미대륙의 광활함에 다시한번 감탄을 하면서 축복받은 미국인들의 이 낙원이 하느님의 배려인가 생각해 보았다. 시카고로 올라오는 길 곳곳에 작은 호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예전의 빙하기이후 흘러내려온 빙하덩어리의 흔적들인 듯 했다. 시카고 O'hare공항으로 향하면서 짧은 기간동안 정신없이 보고 듣고

한 것들이 채 소화도 되지 않았을 텐데 잠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문득 한국에 있는 아들놈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서둘러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는 긴 잠에 빠져들었다.

이번 미국 시카고 국제학술회의 기간 동안 모든 일 뒤로 하고 성심껏 안내하고 도움을 준 이종국, 최태훈선배님과 유기윤, 엄인수, 이희준, 박성식후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하면서 미국중부에서의 긴 여로를 마칩니다. ☞